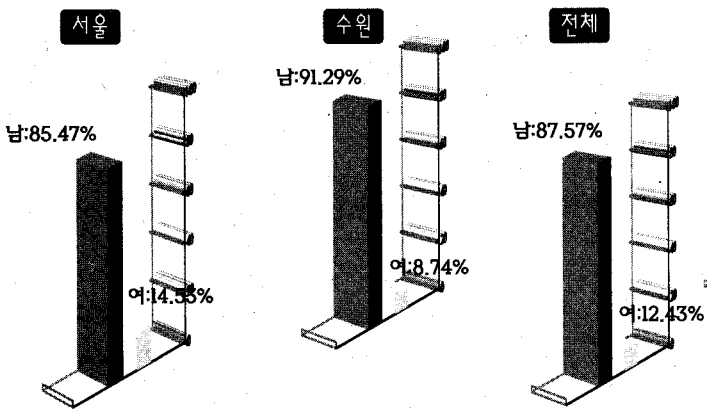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우리학교 교수들의 성비는 어떨까

전체 교수중 남성이 87.57%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캠퍼스 별 교수진의성비와 전체 성비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성비가 훨씬 앞선다. 특히 수원캠퍼스의 경우 공과대학 때문에 남성교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16일 사회봉사 강좌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사회봉사 학점 인정을 위한 '대학과 사회봉사' 강좌를 오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학생들에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조만제(맑은 사회연구소) 교수가 담당한다. 3차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강좌 중 1차와 3차 강좌는 국제교육원이 선발한 외국인 학생 도우미들을 위한 교육으로 일반 학생들은 2차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이번 강좌의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차수	날짜	시간	강의실
1차	4.16	오전 10시 - 정오	국교원 211호
2차	4.28	오후 3시 - 오후 5시	가정대 B106호
3차	5.14	오후 1시 ~ 오후 3시	국교원 211호

무료 약초교실 첫 현장실습

지난달 23일 시작한 '무료약초교실'의 첫 현장실습이 오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 안덕균(한)교수의 지도로 실시하게 될 이번 실습에는 4백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실습장소는 팔당호 주변으로 참가자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팔당호 배알미로 모이던 된다. 또한 주최측은 전체 참가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지급, 자연보호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평생교육원 무료건강강좌

평생교육원은 오는 28일 오후 6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체대대내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이번 강좌의 내용은 '발반사 건강법과 항우울감비율법(아로마테라피)'이다.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준비된 이번 강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인 황순연 선생이 진행하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술도 할 예정이다.

총여, 성교육 강연회 열려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에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30분 복지회관 공연장에서 '대학인의 성 인식과 나의 성 인식'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변혜정(이화여대 박사과정)강사를 초청, 학생들의 성 의식과 성 규범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여학생회 961-0667로 문의하면 된다

동아리방 환경대회

수원캠퍼스 동아리연합회(동연)와 총학생회는 학생회관에 있는 62개 중앙동아리를 대상으로 '동아리 환경 뽀개기 대회'를 13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단은 총학생회 간부 2명, 동연 간부 2명, 학생처 직원 1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단은 오는 17일까지 복도, 공공사용 장소, 동아리 방의 정결 상태와 동아리 성격에 알맞는 환경 조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각 동아리의 환경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24일이며 총 6만원의 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정 및 지원 행사

'98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정 및 지원' 행사가 지난 10일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에서 총22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공과대학부설 산학협력 기술연구원(원장 송영재 공과대학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올해 7월1일부터 98년 6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유동준(의학)교수

“성인병 퇴치는 나의 소명”

세계보건기구 창립 50주년 이자 '제26회 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유동준 교수를 만나보았다. <편집자> “성인병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인병을 퇴치함으로써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노력한 점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어 감격스러울 뿐이다” UN에 보고된 56개국의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일본에 비해 8년이 짧은 사실을 알고 국민 수명을 연장시키는 길은 성인병 퇴치라고 생각한 유교수는 지난 25년간 계몽·보건·환경개선·생활습관 개선 운동

을 펼쳐 왔다. “이번 영예를 등에 업고 앞으로는 성인병 퇴치를 국책연구과제로 선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유교수는 성인병 퇴치의 지름길은 “간소한 식사와 운동 외에 국가적 지원으로 거점별 무료 상담소를 설치해 체계적인 병원망을 설치, 이를 통한 장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정부, 민간단체, 학계의 호응으로 성인병을 퇴치하는 것”이 유교수의 열원이다. 그러한 그의 열원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계자들에게 보내는 당부의 말에도 물론 배어 있다. “앞으로 의학계에서 만성

재학생을 통해 본 경희 정보화 지수 (3)

■ 노트북 구입후 A/S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체	평균
인원수(명)	5	12	3	4	30	2.83/5
구성비(%)	36	40.0	10.0	13.3	100.0	

노트북 관련 행사에 대한 조사 측정사항 중 노트북 구입후 A/S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 40.1%로 높고 전체적으로 불만 및 매우 불만이 36.7%로 높음

■ 보상판매 실시할 경우 구매 의향

구분	구매함	구매안함	모르겠음	전체
인원수(명)	17	7	6	30
구성비(%)	56.7	23.3	20.0	100.0

노트북 관련 행사에 대한 조사 측정사항중 보상판매를 실시할 경우 구매의향이 56.7%로 가장 높음

■ 향후 행사시 본인이 희망하는 대금 지불방법

구분	일시불	6개월 할부	1년 할부	2년 이상 할부	기타	전체
인원수(명)	69	61	101	80	11	322
구성비(%)	21.4	18.9	31.4	24.8	3.4	100.0

노트북 관련 행사에 대한 조사 측정사항 중 향후 행사시 본인이 희망하는 대금 지불방법에는 1년 할부방법이 31.4%로 가장 높고, 2년이상 할부방법이 24.8%로 높음.

“아름다운 캠퍼스를 공개합니다”

양캠퍼 지역 주민에 관광 코스 제공, 콘서트 등 행사 다양

우리학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캠퍼스 개방 주간'을 설정, 지역 주민들의 캠퍼스 입장을 전면 허용했다.

IMF 한파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캠퍼스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본관, 선동호, 자연사 박물관 등 캠퍼스 명소를 견학코스로 제공하고 오늘과 14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학교 음대생들로 구성된 브라스밴드의 공연을 본관 앞에서 선보인다.



▲지난 11일 캠퍼스 개방주간을 맞아 음대 기악과 '필류즈'가 연주회를 선보였다

또한 캠퍼스 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교직원 봉사 단체 '나누리'가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원광복지관의 장애인 및 가족 70명을 초청, 캠퍼스 관광 및 공연 관람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캠퍼스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캠퍼스를 전면 개방,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중앙도서관, 사색의 광장, 천문대 등을 '관광 견학 코스'로 제공한다. 한편 학교측은 캠퍼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면학분위기 저해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규율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강의실 출입은 통제하고 있다.

<강남이 김은택기자>

경희 그 한주의 역사



1954. 4. 15 대운동장 공사 시작

1960. 4. 15 경희중·고등학교 개교식 거행

1961. 4. 14 경희유치원 개교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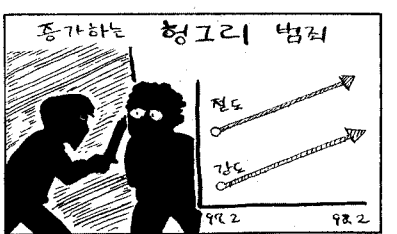
1969. 4. 19 초대 부총장 김명복 교수 취임(왼쪽 사진)

1971. 4. 18 사범대학관을 지금의 모습처럼 증축한 날(오른쪽 사진)

1996. 4. 17 경상남도 고성군과 자매결연협정 조인식 체결



<제274회>



13개 고교 교장단 방문

지난 7일 서울·경기지역 13개 고교 교장단이 수원캠퍼스를 방문했다. 입시홍보행사의 일환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 조경원 총장은 지난해 대학종합평가에서 사상 최고 점수로 1위를 차지한 수원캠퍼스를 소개했다. 또한 아태국제대학원 소개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경시 대회' 설명이 있었다.



취업정보실·학생처, 통합

수원캠퍼스 취업정보실이 학생회관 2층 학생처(216호)로 통합되며 예비군연대본부가 취업 정보실(219호)로 이전한다. 이는 학생관련 행정 부서를 학생회관 3층으로 통합이전에 해 학생들의 민원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청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

지난 8일 12시 수원캠퍼스 피스홀에서 '경기도청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박원규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학교 소개 비디오 상영 및 학교 현황 설명이 있었다.

아태 국제대학원 기공식



▲기공식 이후 식목행사에 조경원 총장과 조선제 교육부 차관이 참여하고 있다

아태국제대학원 기공식이 지난 8일 오후 2시 수원캠퍼스 아태국제대학원 공사 현장에서 치뤄졌다.

시삽식을 시작으로 조경원 총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조선제 교육부 차관은 축사에서 "국위를 대변하는 대학원으로써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를 맡은 LG건설의 이송만 부회장은 "성실히 책임 있는 공사를 하겠다"며 기공식을 축하했으며 정동성 총동문 회장은 "동문들을 대표하여 기공식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조영식 학원장은 아태국제대학원 설립 취지와 배경 설명 등 "제2의

르네상스를 일으키자"는 격려사를 했다. 이외에도 윤병희 동원시장, 이동현 제일화재 회장, 용인경찰서장, LG건설 관계자 등 관련인사 30여명이 기공식에 참석했다. 행사 후 사색의 광장 쪽에서 식목행사도 진행됐다. 식목행사는 각 단대별로 조정계획에 맞추어 지정된 곳에서 열렸으며 교내외인사 3백여명이 다 우관에서 다과회를 가졌다.

다과회에서 이진수 영문학과 교수, 현대개발 경희 동문화, 토목공학과 총동문화에 총장 감사패 전달식도 있었다.

학생 인·적성 검사 및 상담 신청 '폭증'

작년대비 약 4배 증가 성격문제 상담 많아

학교에서 주최하는 상담 프로그램 이용이 전에 없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인성·적성 검사 및 상담에 응한 학생들의 수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97년 3월 인성검사는 24명, 적성검사는 15명, 상담은 16명이 이용하는데 비해 올해 3월 현재 인성검사는 1백28명, 적성검사는

64명이 이용해 4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학생생활연구소 오윤자 교수는 "IMF 한파의 영향으로 학생이 매사에 적극적으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의뢰하는 부문은 성격문제이며, 그 밖에 학습장애, 이성문제 등 폭넓게 상담을 의뢰하고 있다.

축구 배구 핸드볼부 각종 경기사 선전

여자축구 준우승, 배구 대학연맹 2차전 3위, 핸드볼부 연맹전서 3위

우리학교 여자축구팀이 대통령기 여자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학교 여자축구팀은 3승 1무로 인 천체철과 동률을 이루었으나 골 득실차로 아깝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박기봉 감독은 "모든 선수가 국가대표인 인천체철에 패해 준우승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준우승으로 이끈 선수들의 명단을 다음과 같다.

△김미정(체육4) △손성미(체육4) △양선미(체육4) △윤지현(체육4) △김윤정(체육3) △김은옥(체육3) △김정인(체육3) △송주희(체육3) △최현순(체육3) △김진희(체육2) △박지혜(체육2) △배정수(체육2)

△신혜미(체육2) △안나인(체육2) △양수안나(체육2) △이지영(체육2) △김지영(체육1) △박상민(체육1) △신혜민(체육1) △임미정(체육1) △최은아(체육1)

또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학연맹 1차전에서 우리학교 배구부(감독:김희규)가 3위에 올랐다.

7개 대학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2승2패를 기록 한양대(전승), 성대(3승1패)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중재(체육4) △박석운(체육3) △정수현(체육3) △윤관원(체육2) △이동현(체육2) △이영수(체육2) △정호선(체육2) △김기훈(체육1) △박병선(체육1) △윤홍철(체육1)

△이재준(체육1) △전장원(체육1) △황원식(체육1)

한편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대전체육관에서 벌어진 핸드볼대학연맹전에서 우리학교 핸드볼팀(감독:신영석)이 3위를 차지했다.

우리학교는 원광대, 한국체대와 함께 4승1패의 승률을 거두었으나 골득실차로 밀려 3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방정훈(체육4) △이기권(체육4) △박정진(체육3) △이동준(체육3) △이승열(체육3) △이범현(체육2) △이상혁(체육2) △임익재(체육2) △김병식(체육1) △김태완(체육1) △윤경민(체육1) △태준웅(체육1) △허철영(체육1)